

“낙하산 없는 KT”... 노사 총론은 일치, 각론서 ‘삐걱’

추천위 대신 이사회서 CEO 선정 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

노조는 노동자-소비자 대표 포함 “내부견제 가능토록 해야” 주장



KT 광화문 사옥. /연합뉴스

KT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KT 측이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발표한 자체 개선안은 최고경영자(CEO) 최종 후보 선정 주체를 기존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바꾸고, 심사 기준에 후보의 기업경영 경험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사회에 노동자·소비자 대표를 포함시켜 내부 견제가 가능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23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정권교체 때마다 이어지는 CEO 리스크 등의 혼

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T 이사회가 CEO 견제 역할을 하도록 이사회에 노동자·소비자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안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을 오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KT 측이 마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은 지난해 1월 황창규 회장의 연임 결정 때 ‘투명하고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해달라’

는 CEO추천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은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을 CEO 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사외이사 8명, 사내이사 3명)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였다. 개편안은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 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CEO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

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심사 기준에는 후보의 기업경영 경험을 명시했다. 외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을 반영해 비경영 전문가가 이른바 ‘낙하산 인사’로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이 CEO추천위에서 이사회로 이관하는 개편안이 이사회에 담합 구조를 강화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이해관 KT 새노조 경영감시위원장은 “KT는 2014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모든 참석자의 100% 찬성으로 가결해 반대표가 없었다”며 “KT 이사회는 CEO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즉,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셀프추

천’ 구조다. 이 위원장은 “스스로를 추천하고 회장을 추천하는 사외이사들과 CEO가 담합할 경우 회사 경영은 이들만의 리그로 전락될 수 있다”며 “담합적 이사회야말로 민영화 이후 반복되는 KT CEO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위해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구성에서 노동자·소비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가 마련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경영 의사 결정 구조를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주혜선 정의당 의원은 “KT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CEO와 이사진들의 교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와 KT의 구성원들,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KT가 국민의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최강 연비·중형급 만족감... 두토끼 잡았다



기아자동차 ‘올 뉴 K3’

L당 15.2km, 전 모델비 10% 개선 차체 볼륨감 UP·실내 공간 확대



기아자동차 올 뉴 K3 주행 모습.

6년 만에 완전 변경된 ‘올 뉴 K3’는 오랜 기간 축적된 기아자동차의 기술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자동차다. 뛰어난 연비와 첨단 기술을 적용해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젊은 2030세대와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좋은 차량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기아차의 ‘올 뉴 K3’ 사전계약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 뉴 K3’는 사전계약 실시 7일만에 6000대가 계약될 정도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준중형 세단 시장에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올 뉴 K3’를 시승했다. 시승 구간은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경기 포천을 왕복하는 총 170km에서 진행했다.

디자인은 최근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리틀 스티어’라는 호평을 받은 것처럼 감각적이고 개성이 넘친다. 풀(FULL) LED 헤드램프&엑스크로스(x-Cross) LED 주간주행등(DRL)은

날렵한 느낌을 주면서 올 뉴 K3의 존재감을 더욱 강하게 어필했다. 후면부는 화살 모양을 형상화한 애로우 라인 LED 리어컴비램프와 이를 연결한 트렁크 가니시가 디자인 측면에서 올 뉴 K3를 보다 돋보이게 해줬다. 차체도 기존 모델보다 커진 전장 4640mm, 전폭 1800mm, 전고 1440mm를 자랑한다. 축거(휠베이스)만 1세대 모델과 같은 2700mm다. 덕분에 실내 공간은 확대됐다. 운전석과 동승석의 크기는 커졌다. 뒷좌석도 성인남성이 앉기에 높이가 충분했다.

올 뉴 K3의 가장 큰 변화는 파워트레인이다. 1.6L 가솔린 엔진에 무단변속기가 조합됐다. 최고출력은 123마력, 최대토크는 15.7kg·m로 이전모델보다 출력은 줄었지만 주행성능은 나아졌다.

멀티 포인트 인젝션(MPI) 엔진에 듀얼 포트 연료부사 시스템을 사용해 기존 싱글 인젝터 엔진에 비해 연소 효율이 개선됐다.

K3 연비는 L당 15.2km(15인치 타이어 기준)로 이전 모델보다 10%가량 개선됐다. K3에 장착된 무단변속기는 동력을 전달하는 주요 부품인 벨트를 고무에서 금속 재질의 체인 방식으로 바꿔 내구성도 높였다. 실제 주행해보면 스포츠모드로 엔진 회전수를 6600rpm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주행을 한동안 해도 L당 13.5km가량을 유지한다.

‘올 뉴 K3’는 트렌디(1590만원), 럭셔리(1810만원), 프레스티지(2030만원), 노블레스(2220만원) 등 4가지로 운영된다. /양성운 기자 ysw@

KT “겔S8”로 전국 상점정보 간편하게 확인”

삼성전자·LGU+와 ‘플레이스’ 선봬

KT는 LG유플러스,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 갤럭시S8과 S8플러스(+) 스마트폰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전국 주요 상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상호 검색 서비스 ‘플레이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플레이스는 휴대폰 전화 앱에서 고객의 현재 위치나 원하는 위치 주변에 있는 약국, 음식점과 같은 상점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약 450만 개의 전국 주요 상점의 전화번호와 주소, 지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BC카드 결제 내역을 활용해 일상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상점을 선별해 안내해준다.

KT 고객들은 전화 앱에서 KT 지도와 내비 정보를 활용해 고객이 원하는 상점까지 길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플레이스’ 검색창에 ‘약국’을 입력하면 고객의 현재 위치와 가까운 순서대로 약국 목록이 노출되고,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모델들이 ‘플레이스’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KT

전화통화·지도확인이 가능하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원내비’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로 길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플레이스는 KT와 LG유플러스의 갤럭시S8·S8+ 모델을 이용하는 고객이 제조사 업데이트(Oreo O.S)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전화 앱에서 최근 기록, 연락처 외 플레이스 탭이 추가되는 형식이다.

고객은 기본 전화 앱에서 약관동의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KT와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가 주요 플래그십 단말에 ‘플레이스’가 탑재돼 제공될 예정이다. /김민인 기자

NHN엔터테인먼트 게임개발사 ‘NHN빅풋’ 설립

자회사 ‘629’·‘블랙픽’ 합병

NHN엔터테인먼트가 게임 개발 자회사 ‘NHN 629’와 ‘NHN블랙픽’을 합병, 신규 법인 ‘NHN빅풋(NHN BIGFOOT)’을 설립했다고 5일 밝혔다.

NHN629와NHN블랙픽은 2014년NH

N엔터가 물적분할해 설립한 게임개발 전문회사다. NHN 629는 자체개발한 ‘우파루’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우파루마운틴’, ‘우파루랜드’ 등 우파루 시리즈 선보이며 국내 및 동남아시아에서 이용자층을 확보했으며, NHN블랙픽은 ‘풋볼데이’, ‘야구9단’ 등의 스포츠게임 개발 분야

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이번 합병은 양사의 게임개발 역량을 한데 집중해 시너지를 높이고 조직통합을 통한 경영효율성 강화 및 안정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신설법인인NHN빅풋의 수장은 ‘크루세이더퀘스트’, ‘킹덤스토리’ 등의 글로벌 성과를 이끌어 낸NHN엔터테인먼트 게임사업본부 김상호 이사가 맡는다. /김민인 기자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2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25일(일), 3월27일(화)

김민인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521-9111 (강남역 5번출구)